

농구부 8위로 PO 진출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농구부가 '2023 KUSF 대학농구 U-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 22일 농구부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건국대학교(건국대)를 55-53으로 꺾으며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이날 1쿼터는 11-17, 2쿼터는 25-28 열세로 종료됐다. 2쿼터 중반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의 득점이 잇달았으나 결국 상대에 리드를 내줬다. 3쿼터는 신동민(스포츠지도학 2023)의 블록과 속공 득점으로 흐름이 바뀌는 듯했지만 36-43 열세로 마쳤다. 4쿼터에서 임성채(스포츠지도학 2023)가 연속 5득점하며 격차가 좁혀졌고 신동민이 콧백 득점을 올리며 동점이 됐다. 건국대에 다시 역전을 허용했지만 황영찬 선수(스포츠지도학 2020)의 인터셉트와 이어진 득점으로 경기는 원점이 됐다. 경기 종료 약 2분 전 임성채가 2점을 득점해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이승구(스포츠지도학 2020)의 결정적인 3점 슈트와 황영찬, 임성채의 자유투 성공으로 긴 접전 끝에 55-53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정짓는 경기인 만큼 모든 선수의 투지가 돋보였다. 특히 김수오는 14득점 2리바운드, 이승구는 8득점



농구부가 건국대를 55-53으로 꺾으며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사진=최예령 기자)

11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해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황영찬도 9득점 3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주장의 면모를 보였다. 리바운드에서 활약한 수훈선수 이승구는 “초반에 슈트 안 들어갔는데 굿은일, 리바운드, 수비를 먼저하고 찬스가 나면 자신 있게 쏘자고 생각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초반에 프레디와 (최)승빈이의 적극적인 리바운드로 공을 많이 빼앗겼다”면서도 “(신)동민이, (지)승현이, (김)수오, (안)세준이가 많이 괴롭혀준 덕에 후반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현국 감독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했기에 쫓아갈 힘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또 “황

영찬 선수가 두 점 차로 지고 있을 때, 인터셉트 이후 내곽 슈트까지 성공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장 황영찬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욕심을 내는 것보다 팀을 리딩하는 데 집중했다”며 “3쿼터부터 자신 있게 하다 보니 득점도 올라가면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승리로 농구부는 9위 동국대학교와 10위 명지대학교를 제치고 정규리그 8위(6승 8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다. 농구부의 플레이오프 상대는 정규리그 1위인 고려대학교(고려대)다.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상위 8개 팀이 진출하는 것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학교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학교(연세대),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가 출전해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농구부는 남은 기간 선수의 개인 기량을 올리는 데 힘을 기울인다. 김 감독은 “득점력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개인 기량과 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찬은 “어느 팀을 만나든 원팀으로서 더 간절하게 뛸 것이라”며 “다 같이 뛰는 경희대 농구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한편 농구부는 오는 12일 ‘제39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첫 경기인 연세대 전을 앞두고 있다.

▶2면에서 이어짐
개표 이후 총학 SNS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정하고 소통하는 대표자가 되겠다”고 사과를 표하기도 했다. 임기를 이어가게 된 총학은 지난 달 ‘종강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종강파티’는 총학이 주최와 주관을 담당하는 자체 행사다. 행사 업체 역시 총학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학생지원센터는 “예산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운위는 축제 취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체 행사 진행을 검토했지만 의결치는 않았다. 공과대학(공대) 고영윤(정보전자신소재 공학 2017) 회장은 “회의 당시 대부분의 단위가 종강파티를 반대했다”며 “총학 행사에 대한 중운위의 견제는 지나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 선정 완료 이전에 공개된 연예인의 축제 일정, 전 회장의 군 복무 시기 등 일부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신문은 지난 5월부터 문 회장과 전 전 회장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문 회장은 회의와 입장문 등의 공식 석상에서 “모르겠다”며 논란에 함구하고 있다. 향후 총학과의 협력에 대해 공대 고 회장은 “학생이 판단해서 탄핵이 무산됐기 때문에 단과대학 회장으로서 총학에 협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문제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다시 공론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대학 방태웅(국제학 2019) 학생회장은 “지지, 반대와 같은 입장을 가지기보단 정의롭고 투명한 경희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 실시기간** 2023.07.17.(월) 10:00 ~ 07.21.(금) 17:00
- 참여대상** 국제 · 서울 캠퍼스 재학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
※ 휴학생 중 2023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강좌에 대한 수요예측을 위해 반드시 참여 필요
- 대상강좌** 2023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
※ 경희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학점교류강좌 제외(경희사이버대학교의 개설강좌는 수강 신청 1주일 전부터 '종합시간표 조회'메뉴에서 조회 가능)
- 신청가능학점 및 과목**
가. 희망과목담기: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허용학점 내 담기 가능(동일 학수번호 강좌 중복 담기 불가)
나. 예비과목담기: 학점과 관계없이 10개 강좌까지 담기 가능(동일 학수번호 강좌 중복 담기 가능)
※ 희망과목담기가 완료되어야 예비과목담기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http://sugang.khu.ac.kr>

교무처 학사지원팀

